

단단한 조직이냐 발전된 내일에 전망이냐

성남지부

정이며, 이런 정열을 바탕으로 무한한 발전을 내포하고 있다. 단단히 이겨내고 언젠가 전국에서 이룩한 조직체로 우뚝서 있을 때, 본 도시 성남이 「제15차 창립 기념식」을 축하할 수 있는 것이다. 창립기념식이 시련의 열매를 낳고, 그 열매가 전이되어, 열매를 낳고, 창립기념식이

수도 서울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많은 위성 도시가 있다. 이들 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생활권으로 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중 비교적 대도시에 속하는 도시 중 하나인 성남은 다른 도시들과는 남다른 특성으로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우선 성남을 떠올리노라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특성이 남다른 도시 형태이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주택과 도로가 형성돼 있고 많은 인구를 지닌 도시. 도시 형성 자체가 서울의 철거민 이주가 계기가 돼 이방인들이 일구어낸 도시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성 중의 하나가 성남은 '빵의 도시'라는 점이다. 양산 업체인 샤니, 프랜차이즈 업체인 고려당, 파리크라상이 이곳을 본거지로 제빵 시장의 1/5을 담당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그맣지만 소중한 많은 제과점들이 굳은 단결로 제과업계의 한 부분을 지켜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로 이용하는 어려움을 겪다가 회원의 단합된 힘을 모아 90년 2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부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두는 등 조직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현재 성남 지부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지역에 총 180여 회원 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구마다 분회가 조직돼 분회장 아래 이사들이 구성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부 조직 구성 형태는 타 지부와 비슷하지만 성남 지부 구성원들의 단결로 인한 조직의 공고함은 전국에서도 정평이 나있다. 이런 점은 오늘날 성남 지부가 있기까지 몰심양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역대 집행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초대 서종철 지부장을 시작으로 장금치, 최병록, 김영귀, 송광준, 조상희, 현 오세왕 지부장에 이르기까지 역대 지부장과 임원들은 차량도 흔치 않던 어려운 시절 회원 업소를 일일이 방문



성남 제과인의 큰 잔치 창립 기념 행사. 이를 통해 회원 단합을 더 굳게 다지고 있다.

굳은 회원 결속력으로 이름난 모범 지부

성남시 지부(지부장 오세왕)가 결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1978년 '친목회' 형태로 모임이 유지돼 있던 8개 업소가 지부를 결성하면서부터이다. 어느 조직이나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18개 회원으로 출발한 성남지부는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성남시 형성이 철거 이주민의 대거 유입으로 비롯되었고 제과점도 같은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초기 타 도시보다 빈약한 성남시의 여건은 성남 지부 어려움 그 자체이기도 했다.

이처럼 성남 지부는 회원 업소를 사무실

해 공문을 전달하고 회비를 받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회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날 성남지부를 일구어냈다. 이렇게 애써 가꾼 조직이기에 성남 지부는 조급의 흐트러짐도 없다. 회원의 지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불협화음 없이 역대 지부장 및 임원들의 현 집행부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많은 곳이 성남 지부이다.

창립기념행사 등 회원 동참 높아 단합 구심점

성남 지부는 이런 탄탄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회원의 이익과 단합에 힘쓰고 있다. 일반적인 공동 구매 외에도 필요한 재료를

개별 접촉을 통해 최대한 싸게 구입해 공급하고 있고 경영 세미나와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 세미나를 지역 내 경원전문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 회원 단합을 위해 해마다 속리산, 설악산 등으로 야유회를 실시하고 있고 정기 총회와 창립기념 행사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다.

특히 성남 지부는 창립 기념 행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오늘날 성남 지부를 있게 한 '쟁일'이란 의미에서 그 어느 행사보다 큰 비중을 두어 이날 지부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전 회원이 부부 동반으로 참가해 결속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최된 창립 기념 행사에만 300명의 인원이 참가해 단합을 다진 예만 보더라도 성남 지부의 결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밖에 이런 결속을 토대로 성남지부는 대외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역 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케이크를 증정하고 회원이 참여하는 자선 행사, 자연 재해가 있을 때 회원들이 수재 의연금을 전달함으로써 제과업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런 대외 활동과 함께 관공서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성남 지부는 성남시 산하 유관 단체 중에서도 모범 단체로 손꼽히고 있다.

사무실 확장과 기술 세미나장 마련 계획 추진

성남 지부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지부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장소를 빌어 실시하는 기술 세미나를 더 내실있고 자주 개최함으로써 회원 기술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확장하는 사무실에 별도 세미나실 마련을 구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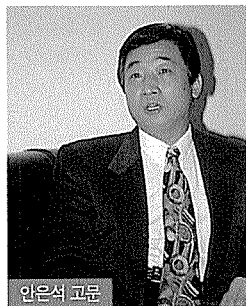
어느 단체건 그 단체가 활성화 되려면 구성원간의 결속이 중요하고 이는 조직의 견고함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조직의 견고함의 밑바탕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은 집행부는 회원에게, 회원은 집행부에게 상호간의 믿음을 전제로 한다. 성남 제과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해 타산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제과인이 모인 곳이라는 말이 증명하듯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비



오세암 지부장



서종철 고문



안은석 고문



이태승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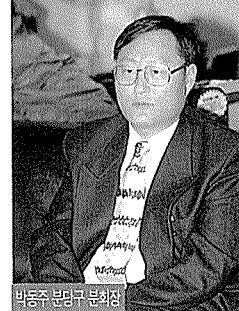
김영찬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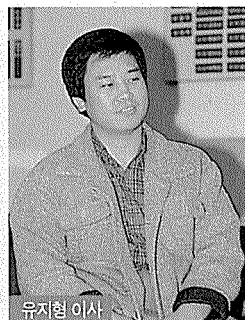
김복배 수장구 분회장



이하림 중원구 분회장



박동주 분당구 분회장



유지철 이사



김대중 이사



김법중 이사



인수균 이사



김동곤 이사



최백운 이사



권우현 이사

로스 조직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남 지부는 믿음으로 키워온 지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느 한 순간 또는 편안하게 형성된 믿음이 아니다. 그 어느 곳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차근차근 다져온 믿음이며 지금까지 기울여 온 회원의 노력이 초석이 되어 성남 지부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탑을 이루고 있다. 마치 어려운 환경과 척박한 땅에서 한송이 꽃을 피운 야생화가 온실 속의 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듯 힘든 여건에서 오늘을 가꾼 성남 지부는 그래서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이다. ☐

〈글/박종선〉